

침례교회의 특성

신약 교회의 교리

침례교가 강조하는 교리와 고수하는 특수성이 성서적이라는 면에서 침례교의 교리는 곧 신약 성서의 교리입니다. 신약 교회의 교리 가운데 침례교가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여 강조하는 몇 가지 문제만 간략하게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 신앙과 생활의 최고 권위로서의 신약 성서

- a. 신구약 66권의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의 유일한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여 따르고 있습니다. (딤후 3:16, 벰후 1:21)
- b. 그래서 침례교회를 또 다른 말로 신약교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 c. 침례 교인들은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읽어야 하고 (요 5:39, 계1:3) 공부해야 하며 (딤후 2:15) 묵상해야 하며 (시1:2) 가르치고 (마28:18-20) 전파해야 하며 (딤후4:2, 고전1:21) 그 교훈을 따라 살아야 한다.
- d. 침례 교인들은 사람들이 만든 전통이나 신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2. 신자의 제사장 직분

각 신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각각 책임과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롬3:19)
각 사람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행13:39)

성경은 우리들 각자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 (벰전2:9, 계1:5,6) 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히4:16)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운명 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구약 시대 제사장들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사해 달라고 기도하던 구약 제사 제도는 폐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의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음을 뜻 했습니다.

3.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얻은 구원

구원은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엡2:8,9)

중생은 우리가 이전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고 새 사람이 되도록 합니다. (고후5:17)

또한 중생은 값없이 얻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롬6:23)

그리고 이 중생을 통한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임으로 영원히 취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롬8:35-39, 빌1:6, 요8:31)

4. 교회와 국가의 분리 [신앙과 양심의 자유]

침례 교인들은 국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법률을 지키고, 국가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의무를 인정합니다. (롬13:1-7)
그러나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 서로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22:21)

여기에 준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져야 하며,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첫째로, 국가의 법률을 잘 지켜야 합니다. (벧전2:13-17)

둘째로, 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마22:17, 롬13:5)

셋째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합니다.

역사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위하여 고귀한 피를 흘렸습니다.

5. 민주적 자치제로서의 교회

a. 중생한 교인의 회원권

교회의 구성원은 침례 받은 회원입니다.

이들 침례 받은 신자들은 각자의 자원에 의하여 회원이 되어 선거권과 피 선거권 및 교회의 재정적, 행정적 책임과 권리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회원이라 해서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고 침례를 받은 후에 자신이 원할 때 비로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b. 모든 회원의 동등한 권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나 지도자는 될 수 있을지라도 아무도 지배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 주셨습니다.(마20:25-27)

c. 자치제로서의 교회

신약 교회들은 교회 내의 문제를 위해 전 교인들이 모여 결정했습니다.

첫째로, 120명의 회원들이 유다의 자리에 맞디아를 선출 했습니다. (행1:15-22)

둘째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7명의 집사를 선출 했습니다.(행6:2-6)

셋째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문제를 결정 했습니다. (행11:22)

넷째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기로 결정 했습니다. (행13:3)

이와 같은 결정은 다 투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침례교회는 침례 교인으로 구성되는 사무 처리 회의에서

민주적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교회의 사업을 의논하고 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침례 교인은 이 회의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결정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회원들은 누구나 이 회의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사무 처리 회의 의장은 교회의 행정 책임자인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명령할 수 없습니다. (벧후3:2, 고전7:10)

교회는 동등한 회원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자발적인 헌금과 봉사로 그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6. 개 교회주의

이것은 한 교회가 다른 교회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간섭을 할 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모 교회였으나, 안디옥 교회를 간섭하거나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성서를 존중하는 교회에서는 어떤 상부 조직이나 명령 계통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 개 교회주의 라는 말이 잘못 이해되어 협동을 거부하고 독선을 펴나가는 방편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개 교회주의라는 말은 협동과 참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신앙과 신조를 가진 교회들이 한 단체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주신 서로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협동한다는 것은 주님의 나라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침례교회의 지방회와 주 총회 혹은 총회 등은 모두 이러한 협동 선교기구입니다. 우리 미 남 침례교회는 Cooperate Program을 통해 선교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 교회 주의는 마땅히 이러한 협동 기구의 규칙을 준수하고 재정적, 행정적 의무를 잘 수행하는데서 그 가치를 더욱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모범적 교회였습니다.

7. 교회의 의식

신약교회의 의식은 침례와 만찬뿐입니다. 이 두 의식은 모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시고 지키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가) 침례

마태복음 3:13-17 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침례를 받으심으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a. 방법과 의미

방법

침례의 방법은 오랫동안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커다란 문제를 일으켜 왔습니다.

- 1) 의식의 집행 방법에는 물을 뿌리는 산수례
- 2) 씻는다는 의미를 가진 세례
- 3) 물을 붓는 관수례 등을 들 수 있으나
- 4) 신약 성서에 기록된 침례는 침수례를 의미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첫째로, “침례” 라는 말로 쓰인 바티조 라는 헬라어는 침몰, 염색의 뜻입니다. 헬라어 가운데서도 씻는다거나 뿌린다는 낱말은 따로 있습니다.

둘째로, 신약성서에서 침례는 침수의 침례였습니다.

마태복음3:6 과 행 8:38,39 의 표현은 분명히 물속에 들어갔음을 뜻합니다.

셋째로, 성경에서는 침수례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침례 의식을 베풀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침수례 외의 다른 방법으로 이 의식이 행해졌다는 기록은 주후 125년경의 작가 미상의 문헌인 “디다케:” 란 책에 물이 없을 경우에 머리에 세 번 부으라는 기록이 있을 뿐입니다. (디다케7:1-3)

넷째로, 침례의 의미가 침수의 침례를 말해줍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상징 합니다. (롬 6:1 - 11)

b. 대상

첫째로, 신앙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침례 받을 수 있습니다. (행2:41,8:36,37)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롬10:10)입니다.

셋째로, 이런 의미에서 유아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C. 목적

먼저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엡 2:8 - 9)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 28:19,20)

d. 시기와 횟수

침례를 받는 데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는 믿은 다음에는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침례 받은 예가 허다합니다.

(행 2:41, 8:12-13, 9:18, 등)

나) 주님의 만찬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주신 말씀을 따라 신약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마 26:26 - 29, 고전 11:23 - 26)

a. 주님의 만찬의 의미

침례 교인들은 주님의 만찬을 예수님의 상하신 몸과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는 상징의 뜻으로 받습니다. (고전11:24-25)

그러나 어떤 교파에서는 만찬의 떡과 포도주가 정말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체설) 이것은 의식을 통해 신비한 영적 능력이 임한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b. 대상

첫째 조건은 중생하고 침례 받은 자라야 합니다. (행2:41,42)

1. 회개하고
2. 구원받은 자들이
3. 침례를 받고, 침례 받은 자들이
4. 교제하며
5. 떡을 떤데음이 분명합니다.

둘째 조건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자라야 할 것입니다.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고전11:27-29) 있다고 하였습니다.

c. 목적

주님의 만찬 역시 침례와 같이 그리스도의 명령임으로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순종할 뿐입니다. 신자는 이 의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또 신자들과 더불어 끊임없이 교제하며 새로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d. 횟수

그 만찬을 행하는 횟수와 빈도는 각각의 개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또 이 만찬 의식의 경건성과 중요성에 비추어서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8. 교회의 직분

침례교회는 교회의 직분으로 목사와 집사만을 인정합니다.

a. 목사

목사는 장로 또는 감독이라고도 불리웁니다.

목사와 장로와 감독은 한 가지 직분의 각각 다른 기능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1. 장로: 경험이 많고 존경 받을 만한 연장자를 뜻함. (유대인들에게)
2. 감독: 교회 전체를 맡아서 돌보는 사람을 뜻함. (헬라 사람들에게)
3. 목사: 목자를 의미하는 말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직분의 사람을 뜻함. (신약교회에게)

즉 경험과 지도력이 있는 나이 많은 사람(장로), 교회를 다스리고(감독) 양떼를 먹이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목사) 의미입니다.

1. 사도행전 20:17, 28 -

2. 베드로 전서 5:1-2

b. 집사

신약성서 교회의 두 번째 직분은 집사입니다.

- 1) “남을 섬기다” 라는 뜻으로 (마20:26, 막9:35, 요12:5, 롬15:8)
- 2) “사자” 라는 뜻으로 (롬13:4)
- 3) “일꾼” 이라는 뜻으로 (롬13:4, 고전3:5, 고후3:6, 갈2:17, 엡3:7, 딤후4:6)에서 각각 사용 되었습니다.

이 말이 집사라는 의미로 사용된 “디아코노스” 의 원래의 의미로 보아 이 직분은 어떤 특별한 봉사를 하기 위하여 선택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a. 집사 직분의 유래

이 직분의 유래는 사도행전(6:1-6) 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인수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소수의 사도들만으로는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래서 구제와 공제할 사람 일꾼을 선출하여 맡기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b. 자격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의 일꾼 집사를 선출할 때의 자격은 다음의 세 가지 였습니다.

1. 칭찬 듣는 사람
2. 성령이 충만한 사람
3. 지혜가 충만한 사람

바울은 이보다 더 자세한 집사의 자격을 디모테전서 3:8-12 에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 단정하고
2. 일구이언 하지 않고
3. 술에 인박하지 아니하고
4.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5. 깨끗한 양심에
6.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7.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8.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는 집사 직분의 수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자 집사에 관한 문제

바울은 뱀뱀을 가리켜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집사’ 와 같은 말) 이라 했습니다.

또 집사의 자격에 대하여 말하는 가운데 “여자들이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 쯤니라” (딤후3:11)

우리는 바울이 뱀뱀을 단순히 일꾼이라고 말했는지 아니면, 집사 직분을 맡은 여자 집사로 호칭한 것인지에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c. 임무

집사의 임무에 대해서는 신약성서에 분명히 기록되지 않았고 단지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들은 거의 구제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 선출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집사 선출의 이유와 목적으로 볼 때, 목회자가 기도하고 설교하는 일에 전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있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집사들은 교회를 관리하는 이상의 일을 하도록 기대되었던 것이 틀림없는데, 일곱 집사 중에 빌립과 스테반은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스테반은 순교까지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집사님의 이름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 볼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봅니다.

1.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지키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집사입니다.
2. 이 책임을 위하여 생명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3. 일을 감당하는 태도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종의 자세여야 합니다.
4. 집사님 제일의 목표는 담임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집사의 직분을 훌륭하게 수행한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상이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잇는 믿음에 담력을 얻느니라.” (딤후3:13)

d. 선출 방법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선출하였습니다. (행 6:2)

9. 모든 신자의 전도적 사명

신약 성서는 모든 신자가 다 그리스도의 증인 (행1:8) 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땅 끝까지 나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어야 할 위대한 지상의 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 28:19, 20)

신약성경은 이러한 사명을 어떤 특정인이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라고 믿습니다!

여러 개신교파 가운데서도 침례교는 특히 개인 전도와 선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세계 어디서나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유일한 교파입니다.

“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막16:15)

10. 청지기로서의 삶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혼의 구세주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인정하고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벧전 4:10, 눅 16:1 - 10)

- .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 .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 주시고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 . 언젠가 반드시 모든 일에 대해 주인에게 결산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삶의 자세로 사는 것이 청지기로서의 삶입니다. (몸, 은사, 시간, 재물..)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며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